



〈HEREN〉 CLASSIC SERIES 3

HERE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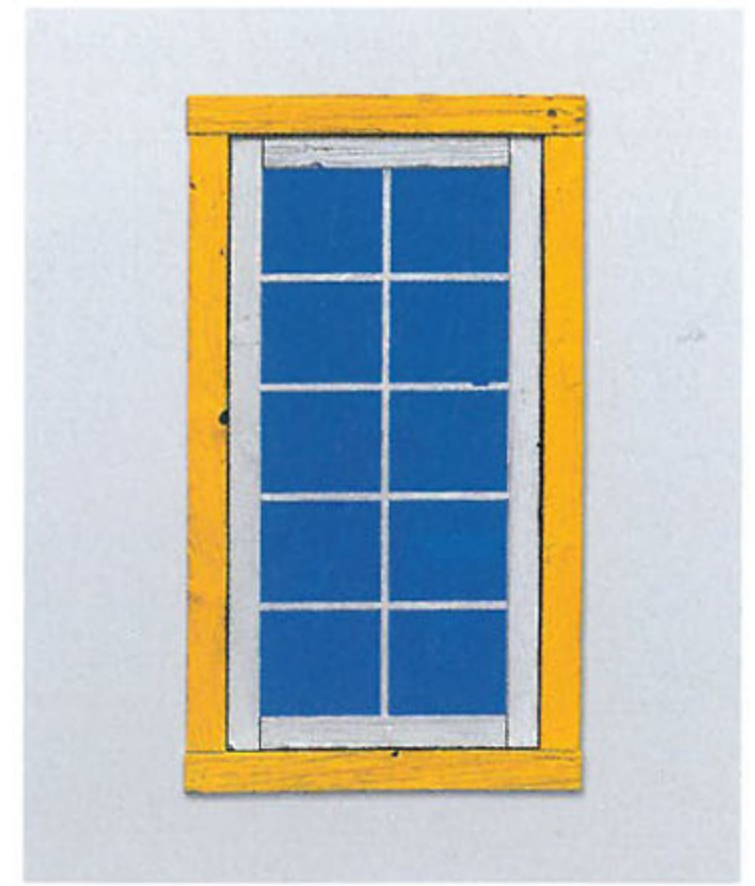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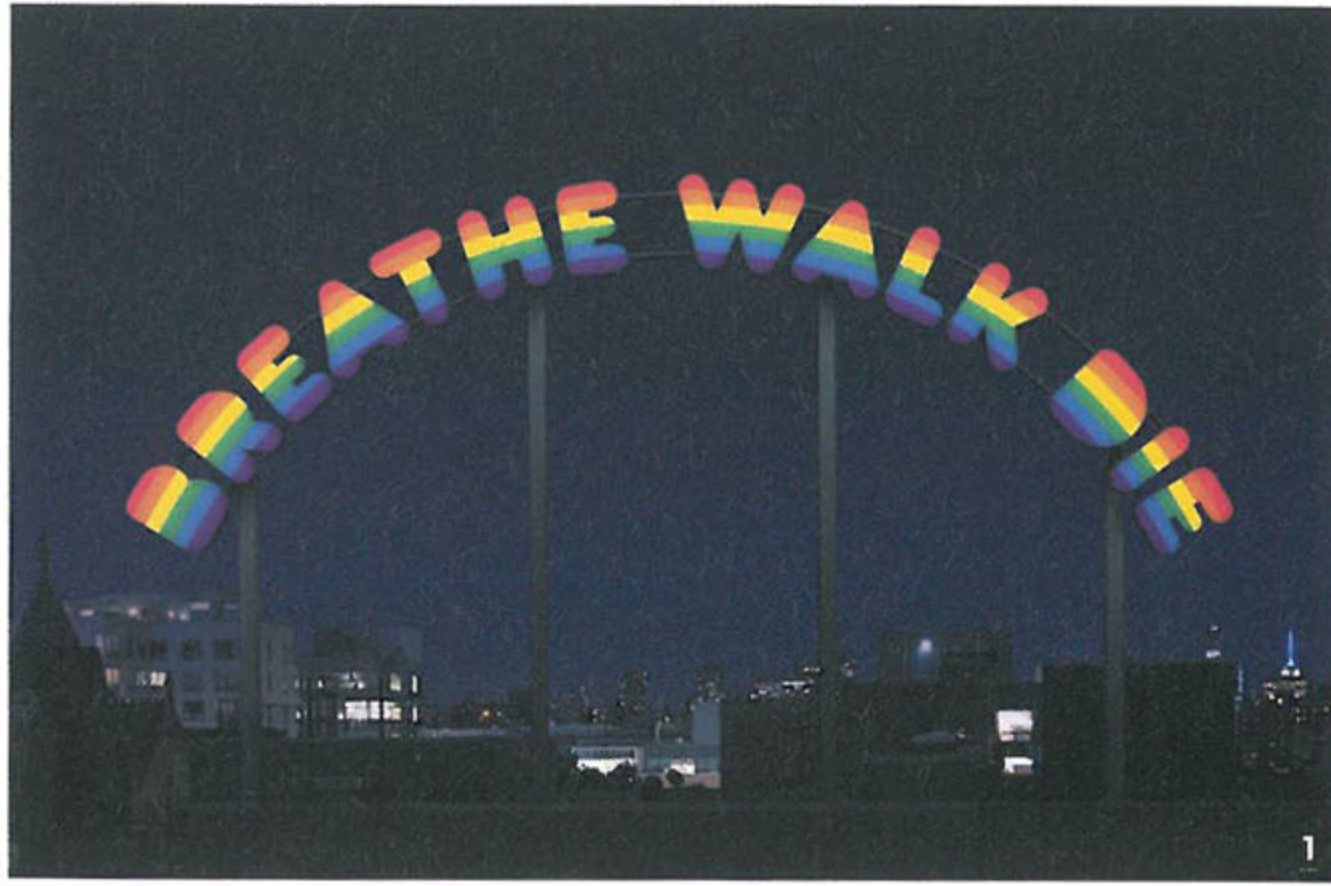


BEYOND THE SENSE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다. 이른바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목적은 우리를 감각 너머의 지점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는 관객들을 직관적 체험의 순간으로 안내하는 작가다. 국내에서의 개인전 준비와 휴가로 분주한 그를 뉴욕에서 미리 만났다.



뉴욕에 있는 론디노네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난 우고
론디노네.



국제적인 인지도에 비하면 아직 국내에 덜 알려진 작가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소개할 우고 론디노네가 그렇다. 1964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그는 현재 뉴욕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작가다. 최근 록펠러 센터에서의 거대한 전시 <Human Nature>를 비롯해 비엔나 미술관,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인 뮤지엄에서 전시를 치른 바 있다. 아직 그를 붙잡지 못한 많은 갤러리들은 그의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 열렬한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고 말이다. 그의 작품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위약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적 작가와 이메일로 나눈 짧은 대화는 이랬다.

당신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입니다. 스위스인인 당신이 수많은 도시 중 뉴욕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뉴욕이라는 도시의 에너지가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와 인종, 정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늘 많은 영감을 줍니다. 게다가 뉴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게 뉴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당신의 작품에 대한 이런 해석을 봤습니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업에는 세상에 대한 작가의 우울한 시선이 담겨 있다. 그는 희망보다는 체념과 우울을 전달하고 있다.' 전 가우뚱했습니다만, 당신도 동의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작가가 마찬가지로지만 하나의 표현이나 관점에 묶이는 건 싫은 일이지요. 다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과 기억에 관심이 있어요. 추상적인 두 가지 영역을 다루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제 작품을 우울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나 기쁨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1
레인보 텍스트 형태의 작품은 우고 론디노네의 초기 대표작이다.

2
지난 9월 한국 전시에서 론디노네는 신작을 대거 선보였다. 이 작품도 한국에서 전시됐다.





아티스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장 과정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성장 과정이 궁금하네요. 전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단조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 시절은 잔상처럼 늘 제 인생에 남아 있겠죠. 제가 가진 정서나 기억이 어떤 식으로건 작품에 나타나겠지만, 이것 분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 작품의 특징은 '특징지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매 작품마다 고수하지만 당신은 작품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리즈가 제각각 다른 작가가 만든 것처럼 스타일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 시리즈를 끝내고 다른 시리즈로 옮길 때마다 생각하는 건 균형감이에요. 명암과 채도, 자연스러운 것과 인위적인 것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표면적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것, 공감각적인 것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건 스

타일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입니다.

당신은 작품 제목에 시간의 개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한 전구 작품인 '1st Hour of the Poem'이나 신문을 이용해 만든 콜라주 작품도 있었죠. 'Primitive' 같은 작품도 넓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가요? 저는 보통 작품을 제작할 때 순간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찰나의 영감이나 인상까지도 작품에 투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데요. 순간이나 시간에 대한 관심은 본능적인 것 같네요.

일부 아티스트들은 작품 제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Untitled'라는 제목은 너무나 많죠. 하지만 당신은 아주 시적인 제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Heart Beat Under Floor Board' 나 'Past? Present? Future? No Such Things' 같은 제목들은 작품만큼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일부러 뭔가를 의식해서 제목을 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제목이라고 해도 그 어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건 제각각일 거예요. 개인이나 관람자의 감상에 맡기고 싶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작가가 언급하는 건 때로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작품에는 직관적 체험의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관람객들이 제 작품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예술과 개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감각 너머의 것들과 교차하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예술이란 이해되기보다는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술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전시 계획에 대해 공개할 수 있나요? 당장 주어진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늘 그렇듯 주어진 기회와 시간은 도전에 가깝거든요. 고민도 많지만 한 가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올 한 해가 힘들겠지만,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IN**



3
지난 2013년 뉴욕 록펠러 센터 앞에서 전시됐던 <Human Nature> 시리즈.